

# 김수아

-문학-



[개념 학습 05]

김삼봉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교육부문 1위 채널

- [ 고 3 ] <https://contents.premium.naver.com/jk9221/jk006445>
- [ 고 1~2 ] <https://contents.premium.naver.com/kl123/jk1234>
- [ 중 1~3 ] <https://contents.premium.naver.com/kl123/jk1234>



## 길삼봉전

| 김민정

### 📍 핵심 정리

#### 작품 개관

가난하고 학문을 좋아하던 길삼봉이 갖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지혜와 의리를 지켜 성공과 명예를 이루는 이야기!!

정여립의 역모 사건 이후 선조는 반란의 주모자로 지목된 길삼봉을 잡기 위해 정철에게 수사 와 재판을 맡긴다. 그러나 길삼봉의 실체는 분명하지 않은 채 수많은 동인 선비들이 억울하게 처형되고, 정철은 차사 최영경을 길삼봉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후 이산해의 탄핵으로 정철은 파직되지만 선조는 여전히 길삼봉을 잡으라고 명령하며 당쟁의 비극이 계속됨을 드러낸다.

[앞부분 줄거리] 동인인 정여립이 역모죄로 죽게 되자, 선조는 정여립과 함께 거론된 반란의 주모자 길삼봉을 잡기 위해 서인 정철에게 수사와 재판을 맡긴다. 밤날 성에 꽃이 흐드러지게 핀 모습 온갖 생물이 바야흐로 흐드러짐. 이웃에게 경치 구경을 권함(말을 건네는 형식) 무수한 동인의 선비들이 죄 없이 죽임을 당하나 길삼봉은 잡히지 않고, 심지어

그가 누구인지, 실존하는지조차 불확실하다. 그러던 중 정철은 차사 최영경을 길삼봉을 잡고자 하나 그의 정체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음. 정철을 최영경을 길삼봉으로 알고 있음. 길삼봉으로 의심해 체포한다.

국청. 조선시대 역적 등의 중죄인을 신문하기 위해 설치한 관아 최영경이 자리에 앉아 있다. 코스루들이 최영경을 둘러싼다. 술병을 손에 연극에서 극 중 특수한 기능과 효과를 담당하는 역할을 이르는 말. 뒤에 문제의 원인이

권 정철, 잔뜩 취해 있다. 되는 상황.(자신의 흥결이 생긴) 정철: 길삼봉 상장군의 몸골이 형편없이 상했구려. 역시 그대의 역당은 그 최영경을 길삼봉이라고 부르면서 확신을 갖는 언행을 하고 있음.

뿌리가 깊소이다. 무고(無辜)를 주청하는 상소가 끝이 없으니 말이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를 고발하는 일 주청: 임금께 아뢰어 청하는 것.

최영경: (호탕히 웃으며) 하하하. 없는 죄를 엮는 일이 여간 쉽지는 않으리 전혀 위족되어 있지 않고 당당하게 응하고 있음. 자신에게 죄를 씌우려는 정철에게 비아냥거리는 태도 다.

정철: 생사 앞에서 그리 담대한 것은 그대의 성품이오 기질이오?

최영경: (웁조리듯) 생사를 잊은 지 이미 수십 년이라. 삶과 죽음에 대해 초연하고 달관한 모습을 보여줌.

정철: (비웃음) 과연 죽림총에 우거하는 현자라는 소릴 들을 만하구려. 이 반어적 의미의 발언: 상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 거리는 의도로 말하는 것임.

황종의 서찰에 줄곧 시국에 대한 비분강개의 글이 난무하던데, 그대 또한 정철이 최영경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자료 슬프고 분해서 복이 받치는 것 어지럽게 널려 있다는 의미 그와 뜻을 같이하는가? (서찰을 내보인다.)

최영경: (타령을 읊듯 태평하게) 혹은 옳고 혹은 아니 옳고, 그대들의 쓸개 상황과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말

빠진 당파 싸움에 비분강개하는 마음은 그의 것이 나의 것이나, 벼슬을 물 당파 싸움의 폐해에 대해서는 비분강개하고 있음.

린 것은 나의 도량이 그에 미치지 못함이오. 벼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

정철: 죽림에 문혀 현실 정치가 봉당의 패싸움입네 더러운 오물이네 하고 대나무 숲이란 '죽림'은 벼슬에서 떠나 있는 상황을 말함. 말로만 하는 것은 쉬운 것으로 상대가 정치에 잘 모른다는 뜻 말하기는 쉬운 법이오. 상대를 비하하며 비아냥거리는 모습

최영경: (정색하며) 허면 화려한 복색으로 껌을 출입하며, 사탕발림으로 임 태도 변화: 비아냥 거림에서 비판적 태도로 변화 벼슬로 호화로운 삶을 유지하고 있음. 교언영색의 태도로 임금의

금의 귀를 어둡게 하고 당쟁만 일삼는 그대들은 들팍의 곡식을 일구는 농 현명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음.(위정자의 현실), 당쟁의 문제점 지적 성실하게 살아가는 농부의 진실한 삶이

부의 땀을 알며, 배꼽아 죽어 가는 아이, 병들어도 약 한 번 써 보지 못하는 중요함을 강조. 위정자의 본연의 임무인 백성을 위한 일에 소홀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음.

노복의 처지를 아는가? 아니, 밤마다 피를 토하며 세상 끝날 날을 노래하 백성의 고통과 원망을 헤아리지 못하는 위정자들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음. 며 텅구는 백성의 울부짖음에는 왜 대답이 없는가? 두 귀가 멀쩡한데 왜 귀를 쳐막고 있는가?

#### 작품 개관

- **갈래:** 역사극·연극 (드라마적 구성으로 각색 된 역사극)
- **성격:** 정치적·사실적·극적, 역사적 사건을 인물 간 대화와 갈등 중심으로 표현
- **주제:** 권력과 당쟁 속에서 무고와 충정, 정치적 음모와 인간적 도덕 사이의 갈등 탐구
- **특징**
  1.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물(정여립, 최영경, 정철, 이산해 등)을 중심으로 전개
  2. 당쟁과 모함, 충정과 무고라는 정치적 갈등을 극적 대화로 표현
  3. 인물의 심리적 갈등과 도덕적 판단을 중심으로 장면과 대사를 구성
  4. 극적 장치(코스루, 서찰, 옥사, 선조의 개입)를 통해 서사적 긴장과 메시지를 강조

#### 전체 줄거리

선조 시대, 동인 정치인 정여립이 역모죄로 몰리며 죽자, 정여립과 관련된 반란 주모자 길삼봉을 체포하기 위해 서인 정철이 수사와 재판을 맡는다. 수많은 동인 선비들이 죄 없이 희생되지만 길삼봉의 존재와 신분은 모호하여, 정철은 최영경을 길삼봉으로 의심해 체포한다. 최영경은 담담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당파 싸움과 정치적 모함 속에서 백성들의 고통과 부조리를 질타한다. 정철은 충심을 내세워 옥사를 진행하지만, 이산해가 정철의 과잉 권한과 모함을 폭로하고 선조에게 보고한다. 결국 선조는 정철의 관직을 박탈하고, 최영경을 무고한 이들을 처벌하며, 길삼봉 체포 명령을 내린다. 이 과정을 통해 작품은 당쟁과 권력 남용, 개인의 도덕적 판단과 충정을 중심으로 정치적 음모와 인간적 갈등을 드러낸다.





**정철:** 뜻만 있으면 무엇 하오? 행함이 없으면 다 헛것인 것을.

뜻만 있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비판하고 있음.

**최영경:** 그대가 헛것을 논하더니 하하. 헛것을 핑계 삼아 선비의 목을 치는 그대가.

실체가 없는 '길삼봉'을 핑계로 자신을 처단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

(중략)

**선조:** (화를 내며) 대체 길삼봉이 어떤 자이길래 최영경의 목숨까지 앗아 간단 말이오!

최영경이 숨진 것에 대해 정철을 질책하고 있음.

**정철:** 송구하옵니다. 최영경이 길삼봉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미력한 인물

보잘것 없는

이온데, 옥사(獄死)에까지 이르렀으니 신을 벌하시옵소서. 다만, 수많은

감옥 안에서 죽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응당 벌을 받아야한다고 말하면서도

고변을 밝히고자 그리한 충정은 헤아려 주시옵소서.

자신의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달라는 말을 하고 있음.(고변:반역 행위를 고발함)

**이산해:** 최영경을 길삼봉이라 무고(誣告)한 이들이 모두 정철 대감의 수하

최영경의 죽음에는 정철의 개입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음(무고: 사실이 아닌 일을 고발하는 것)

임을 눈여겨보소서. 이 모든 것이 정철의 계략이옵니다.

시시비비를 명백히 밝혀달라는 말

**정철:** 천부당하옵니다. 신, 충심으로 옥사(獄事)를 진행하였을 뿐, 죄 없는

사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 자신은 충성심에서 비롯된 옥에 관한 일을 진행했을 뿐 무고를 하지 않았음을 말

자를 무고한 바 없사옵니다.

말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음.

**이산해:** 충심을 다한다는 외관이 어찌 술에 취해 공초를 진행하였겠사옵니

술을 마시고 죄인의 범죄 사실을 밝히는 일을 한 것을 지적하고 있음.

까? 정철을 당장 파직하옵소서.

**정철:** 전하, 신의 사사로운 허물을 들추어 어의를 흐리고자 하는 간계이옵

자신의 죄는 인정하고 있지만 사소한 개인적 허물에 불과함. 임금의 뜻 간사한 계략

니다.

**이산해:** 이 서찰 앞에서든 그런 무례한 말을 한단 말이오?

이산해가 정철의 죄를 날조하기 위한 자료: 이황종의 서찰과 달리 위조된 것임.

이산해, 선조에게 서찰을 건넨다. 선조, 펼쳐 들고 보다 안색이 묘연해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 됨.

다.

**이산해:** 최영경이 즉 길삼봉이라고 상소하면 벼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이 서찰'의 내용, 정철을 모함하고 있는 내용임.

것이다. 송강의 필체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사옵니다.

정철을 가리킴(정철의 호가 '송강')

**정철:** 아니옵니다, 전하. 모함이옵니다.

**이산해:** 어릴 적 문우였던 제가 어찌 송강의 필체를 모르겠나이까?

지난날 정철과 이산해가 어떤 관계(학문을 나누던 친구)이었는지 알 수 있음.

**정철:** 필체를 도색하는 것은 일도 아니옵니다. 일찍이 이산해는 정여립의

다른 사람의 글씨를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것(위조 가능성을 말함)

서간.

정철과 이산해의 눈이 불꽃이 튀듯 부딪친다.

인물 사이의 갈등을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장면

**선조:** 위관, 그런데 정여립은 동인인가 서인인가?

**정철:** (머뭇대다) 전 우의정 정언신의 혈족이니 동인이라 할 만하옵니다.

서인인 정철과 정적 관계에 있는 당파

**선조:** 최영경은 어떠하오?

**정철:** (사이) 초야에 은거하는 이가 동서의 구분을 알겠습니까?

**선조:** 그대를 동인 백정이라 하던데 어찌 생각하오?

길삼봉을 내세워 무고한 동인 세력들을 역적으로 몰아 죽인 것으로 인해 생긴 정철의 별명

**정철:** 천부당만부당하옵니다. 역모를 막고자 한 소인의 충정을 헤아려 주

모든 것이 충성심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주장하고 있음

옵소서.

사이,

## 인물의 성격과 특징

### 정철

- 성격: 권력 지향적이며 강단 있고 공격적인 정치가
  - 특징
1. 역모 수사를 명분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사건을 확대함
  2. 자신의 행위를 '충정'으로 정당화하지만 정치적 계산이 드러남
  3.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심문을 진행하는 모습에서 권력 남용과 독단성이 나타남
  4. 당쟁 속에서 상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현실 정치인의 면모를 보임

### 최영경

- 성격: 담담하고 초연하며 도덕적 신념이 강한 인물
  - 특징
1.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임
  2. 당파 싸움을 비판하며 백성의 삶과 현실을 강조함
  3.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둔 선비적 이상과 양심을 상징
  4. 무고한 희생자로서 정치적 폭력의 피해자 역할 수행

### 선조

- 성격: 우유부단하면서도 권력 유지에 민감한 군주
  - 특징
1. 신하들의 대립 속에서 상황에 따라 판단이 흔들림
  2. 정치적 책임을 직접 지기보다 신하 간 대립을 이용하는 모습
  3. 사건의 본질보다 질서 유지와 권력 안정에 관심을 보임
  4. 마지막까지 길삼봉 체포를 명하며 공포 정치의 지속을 드러냄

### 이산해

- 성격: 냉정하고 정치적으로 계산적인 인물
  - 특징:
- 정철의 과오를 이용하여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함
  - 사건의 부당성을 지적하지만 동시에 당파적 이해관계가 작용함



**선조:** 이산해 대감, 그대가 위관을 맡게. (지엄하게) 정철의 관직을 폐하고,  
정철의 직책이 이산해에게 넘어감.  
사가에서 위리안치하게 하라. 또한 최영경을 무고한 이들을 반좌율로 다스  
유배된 죄인이 거처하는 집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도록 하는 것. 무고죄를 저지를 사람을 처벌하는 일  
리라.

**이산해:** 어지를 받들겠나이다.  
임금의 뜻

**정철:** 전하, 이는 모함이옵니다. 전하, 전하!

선조, 이산해에게 웃음을 보인다. 이산해, 기쁨에 함께 웃는다.

**선조:** (갑자기 웃음을 거두며) 위관은 무엇 하는가? 길삼봉이 날뛰고 있지  
길삼봉을 잡아들이라는 명목하에 동인과 서인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선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  
얕은가! 해가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어서 길삼봉을 잡아들이라!

**이산해:** (놀라) 횃불을 밝혀라. 인두를 달구고, 고변된 자들을 끌고 와 형틀  
에 묶어라. 길삼봉을 잡으라는 어명이시다.

선조, 여유롭게 웃는다.  
두 당파의 갈등을 이용해 왕권 강화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서 오는 만족감(=득의만면(得意滿面))

- **국정:** 조선시대 역적 등의 중죄인을 신문하기 위해 설치하던 임시 관아.
- **코러스:** 연극에서 극 중 특수한 기능과 효과를 담당하는 역할을 이르는 말.
- **무고:** 아무런 잘못이나 허물이 없음.
- **고변:** 반역 행위를 고발함.
- **무고한:**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함
- **위리안치:** 유배된 죄인이 거처하는 집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던 일
- **반좌율:**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한 삶에게 고발당한 사람이 받는 처벌과 같은 형벌을 가하던 제도
- **해가림:** 여기서는 '일식'을 의미함



## 내용 탐구

### 이야기 전개 과정 분석

- ▶ **[발단~절정] 국정에서의 대립과 최영경의 죽음**  
정철은 술에 취해 최영경을 길삼봉으로 몰아세우며 심문하지만, 최영경은 당쟁에만 눈이 먼 권력층을 당당하게 비판하며 죽음을 맞이한다.
- ▶ **[하강] 정철과 이산해의 논쟁**
  - 최영경의 죽음 이후 이산해는 정철의 '음주 사'와 '무고'를 근거로 정철을 공격한다.
  - 정철은 '충심'을 내세우며 방어하지만, 이산해가 결정적인 서찰(정철의 과오 증거)을 제시하며 위기에 몰린다.
- ▶ **[대단원] 선조의 태도 전환과 비극 암시**  
선조는 이산해의 손을 들어주는 듯하다가, 갑자기 다시 '길삼봉을 잡으라'고 명령하며 옥사의 지속을 선포한다.
  - 권력자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신하들을 이용하고 버리는 정치적 메커니즘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 출제 예감 포인트

- ▶ **선조의 이중성**  
신하들의 당쟁을 방관하거나 이용하며,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지 신하를 희생시키는 냉혹한 절대권력자의 모습
- ▶ **최영경의 대사와 연계 작품**  
당시 지배층이 간과했던 민중의 삶(배굶어 죽는 아이, 병든 노복)을 언급하며 당쟁의 허망함을 고발함.
- ▶ **작품에서 정철의 의미**  
정철이 악인으로만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선조라는 더 큰 권력의 판 위에서 이용당하는 체스의 말에 불과함을 파악해야 함.
- ▶ **'술'의 서사적 역할과 의미**  
정철의 방탕함과 수사 과정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광기 어린 시대적 상황을 상징함.
- ▶ **극적 반전 효과**  
이산해가 승리했다고 믿는 순간, 선조가 다시 길삼봉을 잡으라 명하며 옥사를 재개하는 장면의 극적 효과.





# 프리미엄 수특 변형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동인인 정여립이 역모죄로 죽게 되자, 선조는 정여립과 함께 거론된 반란의 주모자 길삼봉을 잡기 위해 서인 정철에게 수사와 재판을 맡긴다. 무수한 동인의 선비들이 죄 없이 죽임을 당하나 길삼봉은 잡히지 않고, 심지어 그가 누구인지, 실존하는지조차 불확실하다. 그러던 중 정철은 차사 최영경을 길삼봉으로 의심해 체포한다.

국청.

최영경이 자리에 앉아 있다. 코러스들이 최영경을 둘러싼다. 술병을 손에 쥔 정철, 잔뜩 취해 있다.

**정철:** 길삼봉 상장군의 물골이 형편없이 상했구려. 역시 그대의 역당은 그 뿌리가 깊소이다. 무고(無辜)를 주청하는 상소가 끝이 없으니 말시오.

**최영경:** (호탕히 웃으며) 하하하. 없는 죄를 엮는 일이 여간 쉽지 않으리다.

**정철:** 생사 앞에서 그리 담대한 것은 그대의 성품이오 기질이오?

**최영경:** (옹조리듯) 생사를 잊은 지 이미 수십 년이라.

**정철:** (비웃음) 과연 죽림총에 은거하는 현자라는 소릴 들을 만하구려. 이황종의 서찰에 줄곧 시국에 대한 비분강개의 글이 난무하던데, 그대 또한 그와 뜻을 같이하는가? (서찰을 내 보인다.)

**최영경:** (타령을 읊듯 태평하게) 혹은 옳고 혹은 아니 옳고, 그대들의 쓸개 빠진 당파 싸움에 비분강개하는 마음은 그의 것이 나의 것이나, 벼슬을 물린 것은 나의 도량이 그에 미치지 못함이오.

**정철:** 죽림에 묻혀 현실 정치가 봉당의 패싸움입네 더러운 오물이네 하고 말하기는 쉬운 법이오.

**최영경:** (정색하며) ㉠의하면 화려한 복색으로 걸을 출입하며, 사탕발림으로 임금의 귀를 어둡게 하고 당쟁만 일삼는 그대들은 들판의 곡식을 일구는 농부의 땀을 알며, 배불라 죽어 가는 아이, 병들어도 약 한 번 써 보지 못하는 노복의 처지를 아는가? 아니, 밤마다 피를 토하며 세상 끝날 날을 노래하며 똥구는 백성의 울부짖음에는 왜 대답이 없는가? 두 귀가 멀쩡한데 왜 귀를 처막고 있는가?

**정철:** 뜻만 있으면 무엇 하오? 행함이 없으면 다 헛것인 것을. 최영경: 그대가 헛것을 논하다니 하하. 헛것을 핑계 삼아 선비의 목을 치는 그대가.

(중략)

**선조:** (화를 내며) 대체 길삼봉이 어떤 자이길래 최영경의 목숨까지 앗아 간단 말시오!

**정철:** 송구하옵니다. 최영경이 길삼봉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미력한 인물이온데, 옥사(獄死)에까지 이르렀으니 신을 벌하시옵소서. 다만, 수많은 고변을 밝히고자 그리한 충정은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산해:** 최영경을 길삼봉이라 무고(誣告)한 이들이 모두 정철 대감의 수하임을 눈여겨보소서. 이 모든 것이 정철의 계략이옵니다.

**정철:** 천부당하옵니다. 신, 충심으로 옥사(獄事)를 진행하였을 뿐, 죄 없는 자를 무고한 바 없사옵니다.

**이산해:** 충심을 다한다는 외관이 어찌 술에 취해 공초를 진행하였겠사옵니까? 정철을 당장 파직하옵소서.

**정철:** 전하, 신의 사사로운 허물을 들추어 어의를 흐리고자 하는 간계이옵니다.

**이산해:** 이 서찰 앞에서도 그런 무례한 말을 한단 말시오? 이산해, 선조에게 서찰을 건넨다. 선조, 펼쳐 들고 보다 안색이 묘연해진다.

**이산해:** 최영경이 즉 길삼봉이라고 상소하면 벼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송강의 필체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사옵니다.

**정철:** 아니옵니다, 전하. 모함이옵니다.

**이산해:** 어릴 적 문우였던 제가 어찌 송강의 필체를 모르겠나 이까?

**정철:** 필체를 도색하는 것은 일도 아니옵니다. 일찍이 이산해는 정여립의 서간.

정철과 이산해의 눈이 불꽃이 튀듯 부딪친다.

**선조:** 위관, 그런데 정여립은 동인인가 서인인가?

**정철:** (머뭇대다) 전 우의정 정언신의 혈족이니 동인이라 할 만하옵니다.

**선조:** 최영경은 어떠하오?

**정철:** (사이) 초야에 은거하는 이가 동서의 구분을 알겠습니까?

**선조:** 그대를 동인 백정이라 하던데 어찌 생각하오?

**정철:** 천부당만부당하옵니다. 역모를 막고자 한 소인의 충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사이,

**선조:** 이산해 대감, 그대가 위관을 맡게. (지엄하게) 정철의 관직을 폐하고, 사가에서 위리안치하게 하라. 또한 최영경을 무고한 이들을 반좌울로 다스리라.

**이산해:** 어지를 받들겠나이다.

**정철:** 전하, 이는 모함이옵니다. 전하, 전하!

선조, 이산해에게 웃음을 보인다. 이산해, 기쁨에 함께 웃는다.

**선조:** (갑자기 웃음을 거두며) ㉡위관은 위관은 무엇 하는가? 길삼봉이 날뛰고 있지 않은가! 해가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어서 길삼봉을 잡아들이라!

**이산해:** (놀라) 햇불을 밝혀라. 인두를 달구고, 고변된 자들을 끌고 와 형틀에 묶어라. 길삼봉을 잡으라는 어명이시다.

선조, 여유롭게 웃는다.

## 01 이 글의 갈래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사 중심의 전개를 통해 갈등이 표면화된다.
- ② 인물의 내면 독백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설명된다.
- ③ 정치적 갈등이 사건 전개와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 ④ 무대 지시문이 인물의 상황과 분위기를 보충한다.
- ⑤ 인물 간 대립을 통해 주제 의식이 심화된다.







11 글의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영경이 권력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당쟁의 폐해를 비판하는 모습은 초지일관(初志一貫)의 태도로 볼 수 있다.
- ② 정철이 확실하지 않은 정황을 근거로 최영경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모습은 견강부회(牽強附會)라 할 수 있다.
- ③ 선조가 정철을 파직하면서도 다시 김상봉 체포를 명하는 장면은 우유부단(優柔不斷)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이산해가 정철의 실책을 이용하여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모습은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사례라 할 수 있다.
- ⑤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김상봉을 둘러싸고 의심과 고변이 확대되는 상황은 유언비어(流言蜚語)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12 ㉠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권력자들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현실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정치적 당파 싸움이 국가 운영의 필수적 과정임을 인정하면서 그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③ 권력을 가진 자들이 민생을 외면한 채 당파적 이익에 몰두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정치 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 ④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하기 위해 권력자들의 부정을 과장하여 감정적 호소를 시도하고 있다.
- ⑤ 당쟁의 책임을 특정 인물에게 돌림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13 ㉠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앞선 판결 이후에도 새로운 명령을 내림으로써 사건의 종결보다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려는 군주의 심리가 드러난다.
- ②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체포를 재촉하는 모습에서 권력 유지의 논리가 진상 규명보다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긴장 완화 직후 다시 강한 명령을 제시함으로써 권력 구조 속 갈등이 지속됨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 ④ 신하들의 대립을 조정하고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통치자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 주는 발화이다.
- ⑤ 반복되는 명령 형식은 군주의 권위가 안정되어 있기보다 상황 통제에 대한 불안을 내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14 윗글을 실제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연출자가 고려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궁정 장면은 권력 관계가 시각적으로 드러나도록 인물의 동선과 위치를 위계적으로 배치하여 인물 간 긴장 관계가 관객에게 명확히 전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② 정철과 이산해의 대립 장면에서는 조명을 대비적으로 활용하여 권력 충돌의 긴장감을 강화하고 장면의 극적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 ③ 최영경의 긴 발화 장면에서는 무대 장치를 최소화하고 배우의 발성과 시선 처리를 중심으로 관객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연출이 효과적일 수 있다.
- ④ 선조의 명령 장면에서는 군주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 항상 밝고 안정적인 조명을 유지하여 장면의 긴장감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김상봉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 설정은 무대 밖 인물에 대한 공포와 긴장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음향이나 인물의 반응을 통해 존재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15 글 속의 인물들의 정서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것이다. 윤동주, 「서시」
- ②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김소월, 「진달래꽃」
- ③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따라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한용운, 「님의 침묵」
- ④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 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⑤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정지용,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16 글에 사용된 어휘의 의미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리안치: 귀양을 보내 자유롭지 않게 함
- ② 공초: 죄인이 진술한 내용
- ③ 무고하다: 사실이 아닌 일로 남을 고발하다
- ④ 반좌율: 관련된 사람까지 함께 처벌하는 법
- ⑤ 간계: 정직하고 올바른 계획을 만들어 내는 것





17 최영경이 선조에게 바칠 수 있는 시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넋 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라
- ② 십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 지어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 한 간 맡겨 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돌려 두고 보리라
- ③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 형제 만나고자 /꿈에도 잊지 못할 옛집이 그리워라 /타향살이 몇 해런가 눈물만 흘리노라
- ④ 아버이 살아실 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 ⑤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 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굵이굽이 퍼리라

18 이 글을 소설로 옮겼을 때 달라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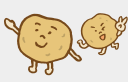
- ① 인물의 대사 중심 제시에서 벗어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배경을 직접 설명할 수 있다.
- ② 무대 지시문으로 제시되던 인물의 행동과 분위기가 서술자의 묘사로 구체화될 수 있다.
- ③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인물의 과거 행적이나 내면 독백이 삽입될 수 있다.
- ④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만으로 갈등을 드러내던 방식에서 벗어나 서술자의 관점이 개입될 수 있다.
- ⑤ 인물 간의 갈등이 대화를 통해 드러난다는 점은 유지되므로, 서술 방식과 표현상의 변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19 최영경이 당시 위정자들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인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름이 無心(무심)탄 말이 아마도 虛浪(허랑)하다.  
中天(중천)에 떠 이서 任意(임의)로 다니면서  
구태여 光明(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나니.
- ② 더우면 곳 뛰고 치우면 닢 디거,  
솔아, 너는 언디 눈서리를 모르느냐.  
九泉(구천)에 불휘 곁은 줄을 글로 하여 아노라.
- ③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 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라마는  
다정도 병인 양하야 잠 못 드러 하노라.
- ④ 가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白鷺)야 가지 마라  
성낸 가마귀 흰빛을 새오나니  
청강(淸江)에 도히 씻은 몸을 더러일가 하노라.
- ⑤ 흥망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 | 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 객(客)이 눈물 계워 하노라.



#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②  
 (해설) 이 작품은 희곡 형식으로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드러나며, 내면 독백은 제시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희곡은 '보여주기(showing)'가 중심이라는 점을 확인할 것.

**02** [정답] ②  
 (해설) 이산해는 경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파직을 주장한다.  
 [오답 피하기] 인물 간 정치적 입장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함.

**03** [정답] ③  
 (해설) 최영경은 백성의 고통을 언급하며 권력과 당쟁을 비판한다

**04** [정답] ③  
 (해설) 선조는 정철을 파직하면서도 다시 김상봉 체포를 명한다.  
 [오답 피하기] 결말부의 반전적 태도를 고려해야 함.

**05** [정답] ③  
 (해설) 이 글은 동인·서인 갈등과 권력 투쟁이 중심이 정치적 갈등 향상으로 이념과 권력이 충돌하는 갈등 구조이다.

**06** [정답] ③  
 (해설) 이산해의 발언은 정철의 몰락과 권력 이동을 촉발한다.  
 [오답 피하기] 발화의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

**07** [정답] ③  
 (해설) 작품은 정치 구조 속 희생을 토론했던 제도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08** [정답] ①  
 (해설) 최영경은 개인 억울함보다 시대 비판을 하면서 백성의 고통을 언급하며 권력자들의 행태를 비판한다.

**09** [정답] ② 이 글에서는 권력 구조의 반복적 비극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 의식을 느낀다는 것이 적절한 반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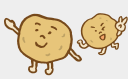
**10** [정답] ④  
 (해설)  
 가. 은 최영경이 백성의 삶과 권력의 부패를 언급하며 당쟁 자체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나. 은 김상봉의 실체가 불분명함에도 옥사가 확대되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과 사건 진행이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다. 은 이산해의 개입이 단순한 인물 간 대립이 아니라 권력의 이동을 촉발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타당하다.  
 라. 은 부적절하다. 선조는 정철을 파직하면서도 다시 김상봉 체포를 명령하는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태도가 변화하며, 일관된 진상 규명 중심의 판단을 유지하지 않는다.  
 마. 은 결말의 구조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진술이다.

**11** [정답] ④  
 (해설)  
 '전화위복'은 재앙이나 불행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로 바뀌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산해의 행위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공세로 볼 수 있을 뿐, 재앙이 긍정적 결과로 전환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는 작품 속 인물의 태도와 사건 전개에 부합한다.

**12** [정답] ③  
 (해설)  
 최영경의 발화는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민생을 외면하고 당쟁에 몰두하는 현실 자체를 비판하는 데 초점이 있다. 즉 정치 권력의 도덕적 기반과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발화이다.  
 [오답 피하기]  
 ①은 현실 정치 참여 촉구로 의미를 축소한 것이고, ②는 당쟁 자체를 인정하는 태도로 왜곡한 것이다. ④는 발화의 성격을 개인적 변명으로 오해한 경우이며, ⑤는 특정 인물 공격이 아니라 구조적 비판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13** [정답] ④  
 (해설)  
 선조의 발화는 사건을 신중히 조정하거나 갈등 확대를 방지하려는 태도라기보다, 사건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체포를 재촉함으로써 권력의 불안과 정치적 긴장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따라서 통치자의 신중한 태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이 문항에서는 선조의 발화를 '명령의 내용'이 아니라 발화가 놓인 극적 맥락과 결말부의 기능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명령 자체의 강도와 통치 능력을 동일시하면 오답에 빠지기 쉽다.





14

[정답] ④  
(해설)

선조의 명령 장면은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결말부로, 긴장 완화가 아니라 권력의 불안과 갈등의 지속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따라서 밝고 안정적인 조명으로 긴장감을 완화하는 연출은 작품의 극적 효과와 맞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연극 연출 관련 문항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연출'인지보다, 작품의 주제와 장면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15

[정답] ①  
(해설)

①의 시 연은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굳게 걸어가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글 속에서 최영경·이산해 등 인물이 불합리한 정치적 압박과 당쟁 속에서도 자신의 판단과 신념을 굽히지 않으려 하는 정서와 가장 유사하다.

16

[정답] ⑤ 간계는 일반적으로 간사한 꾀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남을 속이거나 교묘하게 계획하는 책략을 말한다.

17

[정답] ①

적절한 이유 (수업·출제 관점)

충신의 절대적 충성 표현 -죽음을 앞두고도 임금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음을 노래한 작품으로, 충절의 대표적 시조이다.

정치적 갈등 상황과의 유사성 -정몽주 역시 정치적 권력 교체 속에서 충성을 지키다 죽음을 맞이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억울한 옥사 속에서도 임금을 향한 충심을 유지하는 인물 설정과 매우 잘 대응된다

18

정답: ⑤  
해설

희곡은 기본적으로 대사와 무대 지시문을 중심으로 사건과 인물을 제시하는 갈래이며, 소설은 서술자의 설명, 인물의 내면 묘사, 배경 서술 등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따라서 희곡을 소설로 바꾸면 서술 방식과 표현상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⑤는 이러한 갈래 차이를 무시하고 변화가 거의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③, ④: 희곡에는 직접적인 심리 서술이 제한되지만,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개입하여 심리·배경·과거 사건 등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희곡의 무대 지시문은 최소한의 행동·상황 제시에 그치지만, 소설에서는 이를 서술적 묘사로 확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⑤: 갈래 변화의 핵심인 '서술 방식의 변화'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틀린 선택지이다.

19

[정답] ① 최영경은 위정자들이 당쟁으로 임금의 현명한 판단을 흐리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이 고려말 신돈의 무리들의 횡포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①이다.

